

보도분류	브리핑() 보도자료 제공(✓)
보도일시	2022. 12. 29(목)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작 성 과	개발계획총괄과
담 당	과장 장철배, 담당 서승원(032-453-7843)

송도국제업무단지 미개발지 개발 밑그림 나왔다

인천경제청, ‘개발 활성화 전략 수립 용역’ 최종 보고서 개최

오는 2030년까지 글로벌 업무 등 3개 선도사업 단계별 추진 통해 활성화
 김진용 청장 “우수 기업 유치 가능 세부실행 마련이 관건…NSIC와 적극 협의”

- 송도국제업무단지 1·3공구 내 미개발지의 개발과 관련한 밑그림이 나왔다.
-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9일 송도국제도시 G타워에서 김진용 청장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‘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 활성화 전략수립 용역’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.
- 이번 용역은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 사업 시행자인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(NSIC)가 변화된 대내외적 여건을 고려, 새로운 개발 전략 수립을 통한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2020년 5월부터 진행됐다.
- 용역 결과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 시대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당초 국제기구와 외국기업 등 국제업무 중심에서 혁신기술 중심 업무단지로 개발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.
- 이에 따라 오는 2030년까지 글로벌 혁신업무단지 개발을 목표로 정보기술(IT), 생명공학기술(BT), 문화기술(CT) 분야 타깃기업을 선정, 복합 용도로 개발하고 글로벌 업무·혁신복합·연구개발(R&D) 복합 지구 등 3개 선도사업의 단계별 추진을 통해 점진적인 활성화를 도모한다.

- 특히 글로벌 업무지구의 송도 F3-1,2,3 블록을 1차 선도사업으로 추진, 내년 하반기 NSIC와 개발에 참여하는 사업자 선정 절차에 착수하는 등의 추진 방안을 내놴다.
- 김진용 인천경제청장은 “개발 방향의 큰 열개를 그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후속 조치로 제시된 여러 방안들이 제대로 실행돼 실제 우수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세부 실행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관건”이라며 “앞으로 이와 관련해 NSIC와 적극 협의할 예정”이라고 밝혔다.
- 한편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사업은 송도 1,3공구 일대 5.8km²에 대해 지난 2005년부터 개발 사업이 추진됐으며 현재 개발 진척율은 79%다.